

“우리 가족은 손으로 말합니다.”

-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인호(가명)네 이야기 -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인호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부모님도 모두 청각장애인인 인호네 가족은 평소 수화와 문자로 대화를 나눕니다.

인호네 가족은 외갓집에서 외할아버지와 이모, 외삼촌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외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밝고 활발한 성격을 가진 인호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청각과 언어장애로 인해 학습능력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운동을 좋아해서 방과 후에는 자주 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어울립니다. 몇 년 전 정부지원으로 와우수술을 받아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으로 사춘기 소년 인호가 장애에 꺾이지 않고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인호의 치료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문의 : ☎ 02-3396-1004